

취업자 수 증감의 원인 및 전망

오상봉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- ◎ 2016년 5월에 취업자 수는 26만 1천 명 증가
 - 4월에 줄어든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폭도 4월과 비슷
- ◎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.1%p 상승(15~64세 고용률은 0.2%p 증가)
 - 여성 고용률은 0.2%p 상승하였으나, 남성 고용률은 0.3%p 하락
- ◎ 지속적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
 - 청년 실업률은 20대 후반의 큰 비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상승
 - 20대의 경우 20대 초반 재학생을 제외하고 고용률 상승
 - 30~50대 남성의 고용률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
 -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조업, 건설업, 도소매업 등의 부진의 영향이 큼
- ◎ 상용직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일용직의 감소폭 확대
 - 일용직은 음식숙박업, 건설업, 농림어업에서 감소폭 확대

- 도소매업 등의 자영업자의 감소는 지속되고 있으나, 제조업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폭 크게 축소
- ◎ 제조업의 증가폭 축소는 유지되고 있으며 농림어업의 감소폭 확대
 - 제조업 경기 하강, 대기업의 고용 감소 추세, 삼성그룹의 인력 감축, 조선업 구조조정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제조업의 고용사정 호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임
- 도소매업의 고용 부진에도 음식숙박업,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, 보건복지업 등의 취업자 증가폭 확대로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
 - 도소매업은 하반기에 감소폭이 축소되고 교육서비스업의 최근 증가가 유지될 가능성 높아서 하반기에도 지금 수준의 고용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건설업의 경우 경기호조에 불구하고 취업자 수 감소
- 농림어업의 취업자 감소폭 확대
 - 주로 일용직 감소의 영향이며, 향후에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
- ◎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외한다면, 당분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최근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